

金魚 義謙 作 木造觀音菩薩坐像

최 은 령

(문화재청 대구공항 문화재감정위원)

目 次

- I. 머리말
- II.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작품개요
- III.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특징
- IV. 운흥사 작품과 18세기 전반 의겸의 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부산 내원정사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총높이 108.4cm의 등신크기로 윤왕좌의 자세를 한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이다.¹⁾ 더구나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묵서(墨書)가 발견되어 제작시기와 봉안장소, 그리고 제작자를 알 수 있어 보살상이 조성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다. 묵서에 의하면, 내원정사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30년(옹정 8, 영조 6년)에 경남 고성 와룡산의 운흥사(雲興寺)에서 조성되었으며, 관음보살상을 만든 화원은 18세기 전반에 불화승으로 명성을 떨쳤던 의겸(義謙)²⁾이 참여하였다.

1)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01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7호(2001.10.17)로 지정되었고, 그해 지역신문에서 처음으로 작품의 개괄적인 특징과 중요성이 소개되었다. 이후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특징과 조선후기 불교조각승에 대한 연구논저에서 구체적으로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상의 도상적 특징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박은경, 「내원정사 소장 목조관음보살상」, 이야기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여행 <15>, 부산일보, 2001.11.21

정은우, 「조선 후반기 彫刻의 對外交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7, pp.195~198

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 양사재, 2007, pp.132~134

2) 의겸에 관해서는 조선후기 불화작품과 화사에 대한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어 왔다. 불화승 의겸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은희,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24, 문화재관리국, 1991
石 鼎, 『韓國의 佛草本』, 통도사성보박물관, 1992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上)」, 『미술사연구』 8, 1994

_____,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下)」, 『미술사연구』

의겸은 18세기 전반 숙종대부터 영조대에 걸쳐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리산 유역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최고의 불화승(佛畵僧)으로서 청곡사 패불(국보 302호), 운흥사 패불(보물 1317호), 해인사 영산회상도(보물 1273호), 흥국사 수월관음도(보물 1332호) 등 뛰어난 불화작품을 남겼다. 의겸은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였던 운흥사에서 여러 불화작품도 함께 제작하였는데, 목조관음보살상은 의겸의 현존하는 유일한 불상조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미술 연구에 있어 불상과 조각승, 불화와 화사(畵師)를 주제로 한 고찰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 조선 후기 유파와 양식적인 계보는 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³⁾ 이와 같은 연구 성과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불상과 불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였던 화원이라면 장르를 넘어 작품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즉 불상을 제작한 화승이 불화를 그리거나, 반대로 불화를 그리는 화원이 불상을

9, 1995

_____, 「朝鮮後期 佛畵僧 義謙에 관한 考察」, 『韓國의 佛畵』 10-月精寺 本末寺篇, 1997

3) 佛像 彫刻僧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 새로운 자료소개와 함께 활발해졌고 조선 후기 조각승을 집대성한 연구성과물도 나왔다.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희정,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3, 2005

김미경, 「八空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불교미술사학』 3, 2005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2006

손영문, 「조각승 印均派의 불상조각 연구」, 『강좌미술사』 26- I, 2006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彫塑』, 양사재, 2007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조각하는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현존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예는 찾기 어렵다.⁴⁾

본 논문에서는 의견이 조각한 내원정사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도상 및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원래 봉안되었던 운흥사에서 의견이 동시에 제작하였던 불화작품과 당대 의견의 행적을 통해서 목조관음보살상이 조성된 배경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Ⅱ. 의견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작품개요

1. 조성기문

부산 내원정사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이하 운흥사 또는 의견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고도 명함)은 원래 동아대학교 前 이사장이 보관하던 것을 사후 내원정사로 옮겨져 현재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⁵⁾ 목조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조성기문과 묘법연화경 등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성기문으

4) 최근 부산 영도 복천사의 문화재조사 결과, 20세기 초 경상도지역에서 불화승으로 활약하였던 玩虎가 불화뿐만 아니라 불상을 직접 조각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문연순, 「金魚 梁玩虎의 예술세계와 影島 福泉寺」,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은경, 「영도 복천사 聖寶의 현황과 특징」,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2008

5) 내원정사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3-2에 위치한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950년대 동아대 前 이사장이 구입한 것으로, 보살상의 복장유물 중에서 붉은 종이에는 “1956년 관세음 보살상을 성심으로 봉안하면서 이를 시주한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소원성취를 바란다”는 내용과 말미에는 석당 정재환 동아대 이사장과 정수봉 총장 부부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이 연명으로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언은 박은경, 앞의 글(2001)에 자세히 적혀있다.

로, 불상의 조성시기와 봉안장소 등 작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⁶⁾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기문은 가로 36.4cm, 세로 21.3cm의 규격에 기름이 배인 한지인데, 누렇게 변한 상태였다. 조성기문에는 縱으로 56자가 해서체로 묵서되어 있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雍正八年庚戌春
固城臥龍山雲興寺
觀音聖像
證師 知穎比丘
金魚 義謙比丘
幸宗比丘
採仁比丘
化主大禪師理然比丘
別供 通政朗仁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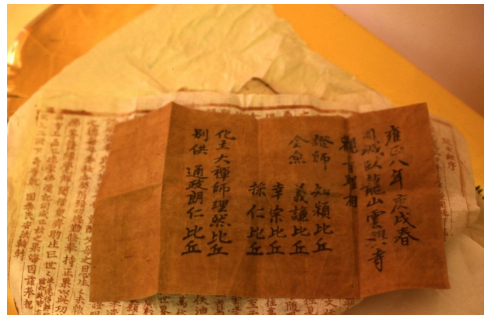


圖 1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출토 조성기문

내원정사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기문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관한 해답과 “누가”에 관한 역할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조성기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제일 먼저 제작시기와 봉안사찰, 불상 존상을 정확히 밝히고

6) 1999년 내원정사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당시 한국교원대 정영호 박사가 조사하던 중, 불상의 복장에서 붉은 종이 한 장과 불상 조성기문, 그리고 표범연화경 등을 발견하였다. 복장유물을 통해서 관음보살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01년에 부산시 문화재지정조사를 실시하여 관음보살상은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47호로 지정되었고, 복장물은 다시 납입되었다. 2001년 문화재지정조사건에 대해 부산시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동아대학교 박은경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셨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논자는 박교수님의 배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있는데 옹정 8년 경술(庚戌) 봄에 고성 와룡산 운흥사에서 관음성상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시기 옹정 8년 경술은 1730년(영조 6)이며, 시기를 연호와 간지로 기록하였다. 봉안사찰인 고성 와룡산 운흥사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와룡산에 있는 사찰로 현재까지도 법맥을 유지하고 있다. 운흥사에는 목조관음상이 조성되었던 1730년 같은 해에 의겸이 그린 불화가 여러 점 남아있다. 그리고 조성기문에서 밝힌 관음성상은 목조불상이 관음보살상이라는 존상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다음으로 운흥사 관음성상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인물들이 소임별로 기록되어있다. 각 소임을 살펴보면, 먼저 증사(證師)는 증명(證明)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의 법회나 의식이 원만히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로서 불사 전반을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증사는 전체적인 일을 감찰하는 최고 우두머리이며 사찰의 고승을 초빙한다.⁷⁾ 증사 지영비구는 당시 운흥사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는데 증명을 하였던 사찰의 고승으로 볼 수 있다.

증사 다음으로 금어(金魚)를 기록하였는데 의겸, 행종, 채인이다. 금어는 주로 불화를 제작한 僧匠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용어로,⁸⁾ 작품특징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운흥사 목조보살상은 당대 최고의 불화승으로 손꼽혔던 의겸이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어 의겸은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였던 같은 해인 1730년에 고성 운흥사에서 불화 여러 점을 그렸으며, 그 중에는 관음보살을 불상뿐만 아니라 불화로도 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성기문에는 금어 의겸 아래에 행

7) 장희정, 『조선후기 佛畵와 畵師 연구』, 일지사, 2003, p.18

8) 조선후기의 불화 화기를 살펴보면, 불화제작의 전과정에 세부적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종과 채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조관음보살상에는 금어 의겸의 작품성이 가장 많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종과 채인은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상 외에도 의겸과 여러 불화작품을 함께 했던 불화승이다.

의겸 다음으로 기록된 행종은 대체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⁹⁾ 수화승 의겸과 1725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조사전 삼십삼조사도, 영산전 팔상도를 제작하는데 참여하였다. 이후 의겸과 1729년에 경남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석가모니후불도를 제작하였으며,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의 여러 불화와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충남 공주 갑사 대웅전 삼세불도의 조성에도 의겸과 함께 참여한 것을 화기를 통해 알 수 있고,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에서 의겸과 함께 작업한 것은 1730년이 마지막이다. 조성기문에 의겸, 행종 다음으로 기록된 채인은 18세기 전반에 수화승 의겸과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는데,¹⁰⁾ 1722년 청곡사 괘불, 1723년 홍곡사 관음보살도, 1724년 송광사 석가모니후불도와 1730년 운흥사 불사에서 의겸과 여러 불화를 제작하였다. 같은 해에 갑사 대웅전 삼세불도의 조성에도 의겸을 수화승으로 행종과 같이 참여하였다. 채인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작품은 1726년 경남 함양 법인사 감로도도와 173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보광전 아미타후불도 등이다.¹¹⁾

9) 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 양사재, 2007, p.209

10) 採仁은 18세기 전반경의 불화 화기에 彩仁 또는 采仁으로 표기되어있는데, 불화를 함께 작업한 다른 화승을 볼 때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수화승 의겸과 같이 참여했던 홍곡사의 관음보살도(1723년), 송광사 석가모니후불도(1724년)의 화기에는 彩仁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상은 18세기 전반에 뛰어난 작품 활동을 했던 金魚 의겸을 위시하여 의겸의 불화작품에 다수 참여하였던 행종과 채인이 함께 조성한 대작임을 알 수 있다.

증사, 금어 다음에 화주(化主)를 기록하고 있다. 화주는 불자의 집을 돌며 절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역할로서 불화 조성에서 재정을 담당한다.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화주는 대선사 이연비구이며, 이연은 화주의 소임으로 대선사의 위계를 가진 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기문의 마지막에 별공(別供)은 통정(通政) 낭인비구라고 기록하고 있다. 별공은 별좌라고도 하며, 부처나 스님에게 공양할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소임이다. 운홍사 관음보살도의 화기에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있는데, “別座通政郎仁比丘”라고 되어있어 별공과 별좌가 같은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별공의 역할을 한 낭인은 통정의 공명첩을 받은 승려이다.¹²⁾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관음성상은 1730년에 경남 고성 운홍사에서 조성되었으며 관음보살상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인물은 모두 승려로 총 6인이다. 6인의 역할은 證師인 지영, 金魚인 의겸, 행종, 채인, 그리고 화주로 이연, 별공에는 낭인비구이다.

11) 최선일, 앞의 책(2007), pp.165~166

12) 승려들에게 주어졌던 공명첩은 嘉善大夫와 通政大夫였으며, 공명첩이 지급되었던 경우에 대해서 안귀숙 앞의 논문(上), p.87 주)89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 도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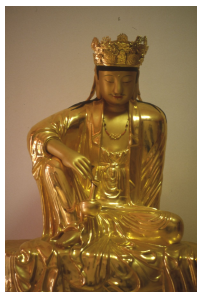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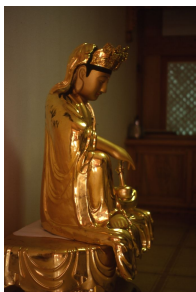


圖 3



圖 4



圖 5

목조관음보살좌상, 1730년, 부산 내원정사

의견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외면에는 금빛이 찬연하다.¹³⁾ 보살상은 나무로 조성된 목조불상이며 오른 손은 따로 만들어 불신에 끼웠다. 그리고 대좌, 보관, 목걸이, 정병은 불신과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보살상의 조성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아마도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다른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상체를 바르게 세워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율왕좌의 자세를 하고 있어, 조선후기 보살상에서는 보기 드

13) 2001년 문화재지정조사 당시, 사찰에서 1992년에 개금불사를 한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금빛이 찬연하였고, 보살상의 뒷면 등 상단부에는 금박이 일부 벗겨져 검은 철이 드러나 보였다.

14) 정병, 목걸이, 보관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여 본문 도상특징의 서술에서 제외하겠다. 보관은 외면에 매단 장식물이 18세기 보살상의 보관장식과는 다르고, 화불과 정병을 동시에 장식하고 있다. 정병의 경우에도 거친 나뭇결, 오색 실로 매단 형태 등에서 보살상의 제작기법 및 조성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목걸이도 다양한 색깔의 구슬을 꿰어 가슴에 걸친 모습이 보살상과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문 경우이다. 즉 오른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오른팔을 걸쳤으며, 왼쪽다리는 반가부좌하고 왼팔을 곧게 뻗어 바닥에 짚고 있는 자세이다. 오른손은 제1지와 제2지를 살짝 맞대고 있으며 손가락 사이에 실을 끼워 작은 정병을 들고 있다. 왼손은 대의에 덮여 드러나지 않았다. 양손과 마찬가지로 왼발은 군의에 덮여 보이지 않고, 오른발은 발등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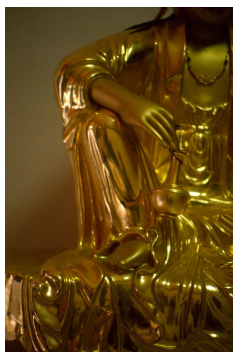


圖 6 보살상의 오른팔



圖 7 보살상의 왼팔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잔잔한 미소를 짓고 매우 편안한 얼굴모습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온화하고, 콧날을 세우지 않고 편평하게 표현하였다. 백호가 작고 특히 귀 형태가 조금 특이한데 귓바퀴를 작고 간단하며 귓불이 늘어진 모양이다.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지 않았다.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관을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턱이 마련되어 있다. 두발은 이색적인데, 보계가 둥글고 높지 않아서 마치 여래상의 육계와도 흡사하다. 머리카락은 표현을 하지 않았고 보발은 양쪽 귀 뒤로 내려와 어깨위에 3가닥으로 드리워졌다.

착의법은 통견식의 대의에 군의는 발 아래까지 길게 흘러 내려와 대좌의 상단부를 덮고 있다. 대의는 목덜미에서 한번 접어서 가지런히 아래로 내려오고, 옷주름은 전체적으로 물결치듯 매우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군의는 가슴 부근까지 올려 입었고, 군의를 묶은 띠는 특별한 매듭형태를 하지 않고 좌우로 짧게 내려왔다. 군의를 묶은 띠의 상하로 생긴 옷주름은 일정한 형태로 도식화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다.

착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머리에 두른 짧은 백의이다. 백의는 낮은 보계와 뒷머리의 일부를 덮고, 귀 뒤로 양 갈래지어 끝자락이 어깨에 살짝 닿아있다. 정면에서 보면 보관에 가려져 백의를 두른 모습을 알 수 없고, 다만 양 귀 옆으로 내려온 자락이 보인다.



圖 8 머리부분



圖 9 군의 띠매듭과 옷주름



圖 10 머리에 두른 백의

의견 작 윤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후기 보살상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구별되는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즉 윤왕좌의 자세, 머리에는 짧은 백의를 두른 모습이다. 윤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윤왕좌를 한 백의관음 도상을 조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자세, 착의법, 유

려한 옷주름, 은화한 얼굴표정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움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Ⅲ.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특징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윤왕좌의 자세와 머리에 짧은 백의를 두른 착의법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파악된다. 보살상의 복장 조성 기문에서 관음성상이라는 존상명칭을 밝혔지만, 보살상의 도상 특징은 더 구체적으로 ‘백의관음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이 같은 도상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특징을 갖는지 자세와 착의법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1. 윤왕좌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왼쪽 다리를 결가부좌하고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세워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이다. 앉아있는 다리모양에 따라, 왼손은 왼쪽 다리의 뒤편 바닥을 짚고 기대었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앉은 자세를 윤왕좌(輪王坐)라고 하며, 전륜성왕의 좌법이라고 한다. 윤왕좌의 자세는 다리형태와 함께 양팔도 일정한 형태를 취한다.

윤왕좌의 자세를 한 보살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몇 작품에 불과하다. 조선후기의 작품은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유일하고, 조선전기로 추정하는 몇 구의 보살상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의 윤왕좌 보살상을 비교해보면, 모두 왼쪽 다리를 결가부좌하고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세워 앉아있는 자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례로 조선전기 15세기의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협시 관음보살상과 16세기 후반의 것으로 전남 관음사의 관음보살상의 경우도 운홍사 보살상과 같은 윤왕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圖 11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선전기,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출토



圖 12 목조관음보살좌상,
1569년, 전남 원도
관음사(現 전남대박물관)

한편,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상의 윤왕좌 형태는 조선시대 다른 보살상과 일치하며, 무릎을 세운 오른쪽 다리의 각도가 다른 보살상과 비교해서 바깥쪽으로 기운 편이다. 의겸이 1730년 같은 해에 운홍사에서 그렸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면, 윤왕좌의 다리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의겸은 불상과 불화를 동시에 조성하면서 조각은 전통형식을 따르고, 회화에서는 변화를 주었던 것 같다.¹⁵⁾ 의겸은 운홍사 불사 7년 전인 1723년 전남 여수 흥국사에

15) 불상과 불화의 두 장르에서 윤왕좌의 자세를 관찰해보면, 불상은 무릎을 세운 자세를 하고 있는 반면 불화는 편하게 다리를 쫓 모습이다.

서 관음보살도를 그렸는데, 역시 운홍사 관음보살도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



圖 13 의겸 作 관음보살도, 1730년,
경남 고성 운홍사



圖 14 의겸 作 관음보살도, 1723년,
전남 여수 홍국사

운왕좌로 앉은 조선시대 보살상은 다리형태에서 동일한 것처럼 양팔의 형태도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다. 즉, 왼손은 왼쪽 다리의 뒤편 바닥을 짚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걸치고 있다. 단, 운홍사 보살상은 무릎 위에 걸친 오른팔을 불신쪽으로 많이 꺾은 형태에서 다른 보살상과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 운왕좌 보살상은 대흥사 관음보살상처럼 오른팔을 앞으로 내린 형태가 대부분이고, 강릉 관음사 보살상과 같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圖 15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전기,
전남 해남 대흥사



圖 16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전기, 강원도 강릉
관음사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윤왕좌 자세는 조선시대 작품과 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을 하고 있으며 무릎을 세운 기울기와 다리에 걸친 팔의 방향에서 약간 다르다. 이것은 불화를 그렸던 의겸이 조각한 작품이라는 데서 차이점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표 1] 조선시대 윤왕좌 자세의 보살상

작품명	현 소장처(원)	상고(cm)	조성연대
금동관음보살좌상	미상 (수종사탑 출토)	9.0	조선전기
금동관음보살좌상 (아미타삼존불좌상)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14.0 (본존불)	조선전기
금동관음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전기
금동관음보살좌상	전남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	50.0	조선전기
목조관음보살좌상	강원도 강릉 관음사	47.0	조선전기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남대박물관 (전남 완도 관음사)	41.5	1569년
목조관음보살좌상	부산 내원정사 (경남 고성 운흥사)	108.4	1730년

2. 백의관음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상은 머리에 짧은 백의를 둘렀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다.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상이 두른 백의는 보계와 뒷머리의 일부를 덮어 길이가 짧고, 끝자락은 양 갈래로 나뉘어 어깨에 살짝 닿은 모습이다. 운흥사 보살상과 같이 짧은 형태의 백의를 두른 보살상은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시대를 거슬러 살펴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이 머리에만 두른 짧은 백의 형태

는 수종사탑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수종사탑 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함께 출토된 금동비로자나불좌상(1628년)과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는데, 높은 보계 위에 짧은 백의를 두른 관음보살상이다. 백의는 머리에서 뒤로 흘러내린 끝자락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이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 결가부좌하였으며 천의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정병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백의를 두른 윤왕좌의 자세를 한 또 다른 보살상이 수종사탑에서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⁶⁾



圖 17 수종사탑출토
금동관음보살
좌상, 1628년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圖 18 수종사탑 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 미상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짧은 백의를 두르고, 윤왕좌의 자세를 한 점에서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매우 유사하여 중요한 작품이다.

백의관음은 흰색의 紗나 나(羅)를 이용한 천을 머리에서부터 두르는 보살을 총칭해서 부르며, 보관에 화불이 있는 경우가 많

16) 정은우, 앞의 논문(2007), pp.195~196

아 대체로 관음보살상으로 조성되었다.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수종사탑 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같은 머리에만 두른 짧은 백의는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백의관음의 형식이며, 현재까지는 다른 작품사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짧은 백의는 중국 청대 정운봉(1547-1628)의 판화집인 『관음화보(觀音畫譜)』 중의 관음도와 닮았는데, 특히 좌우로 갈라진 백의 뒷면 표현이 정운봉의 관음도에서 많이 그려지는 백의형식과 닮았다.¹⁷⁾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윤왕좌의 자세와 짧은 백의를 두른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갖춘 조선시대의 유일한 보살상이다. 또한 조선시대 보살상 가운데, 윤왕좌의 자세를 하거나 짧은 백의를 두른 보살상은 모두 천의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운홍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특이하게 통견식 대의를 입은 보살상이다.

IV. 운홍사 작품과 18세기 전반 의검의 활동

1. 의검 작 경남 운홍사 작품

의검(1713~1757년 활동)은 17세기말에 태어나 숙종대~영조대에 걸쳐 50년 가까이 지리산 유역을 근거지로 활약하였다.¹⁸⁾ 특히

17) 정은우선생님은 조선후반기 불교조각의 대외교섭 논문에서 조선후기 백의관음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백의관음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은 유형을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백의관음 형식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 명대의 백의관음도 유형과 사례를 설명하고, 조선후기 백의관음과의 관련성을 논술하였다. 정은우, 앞의 논문(2007), pp.195~198

전라우도와 서부경남일대에서 화사집단을 거느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門下生을 배출하였으며, 100여 년 정도 지속되는 “의겸파(義謙派)”를 형성, 일세를 풍미한 금어(金魚)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고성 雲興寺에서 불화수업을 하였거나 그곳을 거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⁹⁾ 의겸이 주도한 운흥사 불화조성의 규모를 통해 봤을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며, 이 인연으로 인근 청곡사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전라도까지 불화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18) 1713년 보림사 팔상전 <후불도>가 알려진 그의 최초작품이며, 1757년 화엄사 <삼신불도>가 현재로서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19) 이에 관해 善住山房 佛母인 石鼎스님은 「韓國의 佛畵草」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불모만 양성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雲興寺:義謙을 들고 있다. 石鼎, 『韓國의 佛畵草』, 『韓國의 佛畵草本』, 통도사성보박물관, 1992, p.9

20) 僧匠들은 대체로 지역별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불사를 하거나 또는 분야별로 작업을 했으며, 그 중 名匠으로 이름난 승장은 타지역에도 초빙되었다. 改金畵員인 尙淨이 그 좋은 예이다. 尙淨은 塗金良工으로서 화엄사의 불사(1757년)에도 개금 화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었고, 운문사에 초빙(1769년)되기 전에 이미 부석사의 개금불사(1767년 5월)를 했고, 이후 직지사의 개금불사(1771년)를 주관하였다. 또한 正祖가 행했던 용주사 대불사의 경우,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명성을 날리던 승장들이 엄선되어 불사를 봉행했는데 관음상은 貫虛堂雪訓이 석가아미타약사불은 戒初奉絃尙植이 조각했으며 각 전각마다 都片手가 다르다. 안귀숙, 「조선후기 불화승의 계보와 의겸비구에 관한 연구(상)」, 『미술사연구』 8, 1994, p.84

[표 2] 義謙 作 운홍사 작품과 참여화사

번호	제작 연도	작 품 명	제작 자명	불화제작 참여화사
1	1719	靈山會上圖	畫員 片手	鑲口 義謙
2	1719	八相圖	畫員	義謙 廣欽 就眼
3	1730	三世佛圖	畫員 片手	義謙 幸宗 道允 曇澄 就詳 處尙
4	1730	三藏菩薩圖	畫員	義謙 信鑑 卽心 良贊 慧□ 良運 向敏 興信
5	1730	掛佛	金魚	義謙 眞行 卽心 幸宗 採仁 日敏 道允 最仁 覺天 曇澄 榮闊 晶寬 就祥 釋演 智元 康祥 明善
6	1730	甘露王圖	畫員	義謙 幸宗 採仁 眞行 □□ 日敏 覺元 曇澄 晶寬 就詳 策闊 智元 處永 明善
7	1730	觀音菩薩圖	金魚	義謙 幸宗 採仁
8	1730	木造觀音菩薩坐像 (내원정사 소장)	金魚	義謙 幸宗 採仁

의겸이 경남 고성 운홍사의 불화작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 1719년 영산전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작품이었고, 이때 금어라고 화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이 불사는 廣口가 의겸을 비롯한 화사들을 데리고 주도했기 때문에 영산회상도는 수화사 광구(廣口) 다음에 片手 신분으로 참여하였고 좌우에 봉안되는 팔상도는 의겸이 수화사가 되어 그린 작품이다. 운홍사 영산전 불화들은 의겸의 초기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화풍 중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인 수묵담채적인 경향과 홍색 · 양녹색 · 황토색의 조화, 섬세한 세선위주의 필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운홍사

불화들은 의겸이 수묵기법과 담채에 뛰어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草그리기 작업 이전에 수묵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이미 기량을 발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1730년 의겸은 운흥사의 패불과 대웅전의 삼세불도, 관음보살도, 삼장보살도, 감로왕도를 완성하였다. 운흥사불화는 패불을 제외하고 대웅전 불화들은 모두 황토색바탕에 홍색과 양녹색의 독특한 설채법을 보여준다. 의겸은 이 시기에 화면구성과 필법, 색조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겸이 화사로서의 완성도를 보였던 운흥사 불사에서 불화작품 뿐만 아니라 현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관음보살도를 제작하였던 화사들과 함께 제작하였던 것이다.



圖 19 의겸 作
삼세불도(약사불),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圖 19-1 의겸 作
삼세불도(아미타불),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圖 20 의겸 作 삼장보살도,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圖 21 의겸 作 감로도,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圖 22 의겸 作 패불,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특히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관음보살을 한 화폭에 단독으로 그린 점에서 현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비교된다. 의겸은 불화의 주존불과 보살들의 얼굴 형태에서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묘사하여 의겸이 지닌 독특한 스타일을 보인다. 이것은 관음보살상의 얼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관음보살상이 다른 작품과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자비롭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흥사 관음보살도의 화기 내용은 관음보살좌상과 일치하며, 파당·포시(婆蕩·布施)의 시주품목과 시주자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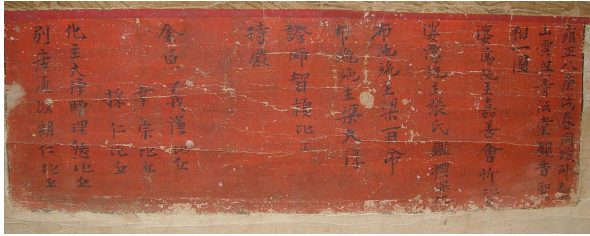


圖 23 운흥사 관음보살도 화기

또한 화기 처음에 기록한 “雍正八庚戌春固成臥龍山雲興寺法堂觀音聖相一圖”의 구절에서 운흥사 法堂 관음도 한 점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법당은 구체적으로 전각명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관음보살도와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던 정황을 볼 때 관음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상과 관음보살도는 金魚 의겸과 행종, 채인 3인이 조성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함께 작업하였던 작품들을 살펴보면 1725년 송광사, 1729년 해인사, 1730년 운흥사와 감사의 불화조성이다. 작품활동에서 공통점은 1729년 경남 합천 해인사 불사와 1730년 경남 고성 운흥사 불사에서 함께 참여한 작품이 많으며, 여러 화사 중에서도 함께 참여한 작품의 경우에는 의겸-행종-채인의 순서로 화기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겸, 행종, 채인 3인만이 조성한 작품은 1730년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운흥사 관음보살도 두 작품뿐인 점이다.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한 의겸과 행종, 채인이 함께 제작한 작품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3] 의겸, 행종, 채인이 함께 참여한 작품

번호	제작연도	작품명	불화제작 참여화사
1	1725	松廣寺 祖師殿 三十三祖師圖	義謙 處證 慧密 明習 信鑑 明眼 良悟 卽心 最祐 幸宗 豆陟 回眼 向敏 良運 敏熙 彩仁 日敏 □閑 自昊 永玄 智云 萬連 宏陟 解宗
2	1729	海印寺 大寂光殿 釋迦牟尼後佛圖	毫仙義謙 汝性幸宗 □眼 敏熙 採仁 日敏 萬演 叔演 智元 楚眼 道玄
3	1729	海印寺 三身佛會圖	毫仙義謙 汝性幸宗 □眼 敏熙 採仁 日敏 萬演 叔演 智元 楚眼 道玄
4	1729	海印寺 地藏菩薩圖	毫仙義謙 汝性幸宗 □眼 敏熙 採仁 日敏 萬演 叔演 智元 楚眼 道玄
5	1730	雲興寺 掛佛	義謙 眞行 卽心 幸宗 採仁 日敏 道允 最仁 覺天 曇澄 榮闊 晶 寬 就祥 釋演 智元 康祥 明善
6	1730	雲興寺 甘露王圖	義謙 幸宗 採仁 眞行 □□日敏 覺元 曇澄 晶寬 就詳 策闊 智 元 處永 明善
7	1730	雲興寺 觀音菩薩圖	義謙 幸宗 採仁
8	1730	雲興寺 (現 내원정사 소장) 木造觀音菩薩坐像	義謙 幸宗 採仁
9	1730	甲寺 大雄殿 三世佛圖 (釋迦牟尼佛)	義謙 採仁 德敏 晶寬 智元 儀謙 幸宗 採仁 德敏

2. 18세기 전반 의겸의 활동

의겸은 17~18세기 숙종~영조대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50여년간 활동한 화승으로서 특히 충남에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일대에 걸쳐 활발한 제작활동을 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사후에도 100여년간 이 일대에 의겸파 화맥을 형성시켰다.²¹⁾ 그들 중 채인·공척·색민(彩仁·巨陟·色敏)과 공척(巨陟)을 이은 장홍비현(壯洪丕賢) → 화악평삼·승윤(華岳評三·勝允) 그리고 이들처럼 의겸파 화풍을 구사한 신암화연(信庵華演)이 전남·충남지역에서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하였다.²²⁾

의겸으로부터 비롯된 이 거대한 화사조직은 같은 시기에 경남 지역에서 任閑比丘 아래 조직되었던 대규모 화사집단인 임한파와 화풍은 전혀 달리하면서 쌍벽을 이루어 18세기 불교화단을 주도해 나갔다.

의겸의 작품경향을 논의할 때 완숙기에 해당하는 1730~40년대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안정사 나한전 삼존상 및 나한상을 조성한 후부터 개암사 괘불을 그릴 때까지 8년간의 화적을 추측할 수 없는 점이 공백으로 남아있다.

21) 한문영, 『韓國書畫家人名事典』, 범우사, 2000, p.434

22) 안귀숙, 앞의 논문 上(1994), p.74

[표 4] 義謙의 작품 목록

번호	제작연도	봉안사찰명	작 품 명	재 질	규 격 (가로×세로,cm)	비 고
1	1713	전남 장흥 寶林寺	八相殿 後佛圖			원존하지 않음. 전라남도 編年史의 附錄 1, 1990, p.191
2	1719	경남 고성 雲興寺	靈山殿 靈山會上圖	麻本彩色	299×270	
3	1719	경남 고성 雲興寺	靈山殿 八相圖	絹本彩色	148×155	
4	1722	경남 진주 靑谷寺	掛佛	麻本彩色	637×1000	국보302호
5	1723	전남 여천 興國寺	應眞堂 靈山會上圖	絹本彩色	115×237	
6-①	1723	전남 여천 興國寺	應眞堂 十六羅漢圖 (1·3·5존자)	麻本彩色	218×161	보물1333호
-②		"	應眞殿 十六羅漢圖 (2·4·6존자)	"	216.5×164	
-③		"	應眞殿 十六羅漢圖 (7·9·11·13존자)	"	214.5×161	
-④		"	應眞殿 十六羅漢圖 (8·10·12·14존자)	"	214×161.5	
-⑤		"	應眞殿 十六羅漢圖 (15존자)	"	80×163.5	
-⑥		"	應眞殿 十六羅漢圖 (16존자)	"	80×160.5	
7-①	1723	전남 여천 興國寺	應眞殿 使者圖	"	136×163.5	
-②		"	應眞殿 使者圖	"	131×160.5	
8	1723	"	觀音殿 觀音菩薩圖	絹本彩色	165×224.5	보물1332호
9-①	1724	전남 순천 松廣寺	應眞堂 釋迦牟尼後佛圖	絹本彩色	166.5×144. 5	보물1367호
-②		"	應眞堂 十六羅漢圖			"
10-①	1725	전남 순천 松廣寺	靈山殿 釋迦牟尼後佛圖	絹本彩色	118.5×124	보물1368호
-②		"	靈山殿 八相圖			"
11	1725	전남 순천 松廣寺	祖師殿 三十三祖師圖	.	.	원존하지 않음. 松廣寺誌
12	1726	전북 남원 實相寺	地藏菩薩圖	絹本彩色	207×207	경남 方山 鑄鐵 佛坐像
13	1728	전북 무주 安國寺	掛佛	麻本彩色	700×1040	보물1267호
14	1729	경남 합천 海印寺	大寂光殿 釋迦牟尼後佛圖	絹本彩色	229.5×240	보물1273호

번호	제작연도	봉안사찰명	작 품 명	재 질	규 격 (가로×세로,cm)	비 고
15	1729	경남 합천 海印寺	三身佛會圖	견본채색		
16	1729	경남 합천 海印寺	地藏菩薩圖	견본채색		
17-①	1730	경남 고성 雲興寺	三世佛圖(藥師如來佛)	麻本彩色	190×323	경남유형 35호
-②		경남 고성 雲興寺	三世佛圖(阿彌陀佛)	麻本彩色	188×323	경남유형 35호
18	1730	경남 고성 雲興寺	觀音菩薩圖	麻本彩色	206×292	경남유형 35호
19	1730	경남 고성 雲興寺	三藏菩薩圖	絹本彩色	305×225	
20	1730	경남 고성 雲興寺	掛佛	麻本彩色	759×1125	보물1317호
21	1730	경남 고성 雲興寺	甘露王圖	麻本彩色	253×244	경남유형 35호
22	1730	부산 내원정사	木造觀音菩薩坐像	木造塗金	108.4(상고)	경남 고성 雲興寺 조성
23-①	1730	충남 공주 甲寺	大雄殿 三世佛圖 (釋迦牟尼佛)	麻本彩色	285.5×441	
-②		충남 공주 甲寺	大雄殿 三世佛圖 (阿彌陀佛)	麻本彩色	284.5×440	
24	1736	전남 순천 仙巖寺	西浮屠殿 甘露王圖	絹本彩色	242×167.5	
25	1740	전남 창평 瑞鳳寺	中佛庵 阿彌陀佛圖	.	.	현존하지 않음. 『本乘本寺松廣寺誌』
26	1740	대구 把溪寺	佛畫, 佛像	.	.	현존하지 않음. 『전남유형조사서』
27	1741	경남 고성 安靜寺	羅漢殿 三尊像 및 羅漢像	石造	.	현존하지 않음. 『安靜寺誌』
28	1749	전남 구례 泉隱寺	七星圖	견본채색	136×105	
29	1749	전북 남원 實相寺	金堂 阿彌陀會上圖	견본 金泥紅幀	247×243	
30	1749	전북 남원 實相寺	天龍圖			
31-①	1749	전북 부안 開巖寺	掛佛	麻本彩色	868.5×1208	보물1269호
-②	1749	전북 부안 開巖寺	掛佛草本	紙本墨線	868.5×1208	통도사성보 박물관소장
32-①	1757	전남 구례 華嚴寺	大雄殿 三身佛圖 (毘盧遮那佛)	絹本彩色	295×438	
-②	1757	전남 구례 華嚴寺	大雄殿 三身佛圖 (盧舍那佛)	絹本彩色	297×437	
-③	1757	전남 구례 華嚴寺	大雄殿 三身佛圖 (釋迦牟尼佛)	絹本彩色	298×438	

의겸이 운홍사와 함께 많은 작품을 남긴 곳이 홍국사의 불사이다. 아마도 이 시기는 불교화단에서의 명성과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활동영역도 확대해가던 때이다. 화사집단을 형성해 청국사 패불과 홍국사 불화를 조성한데 이어 1724~25년에는 조계산문의 본찰 송광사의 불화조성시대 불사를 총지휘했으며, 이후 전북 실상사와 안국사의 불화를 그리기에 이른다. 1723년 의겸은 새로운 화사를 보강하여 홍국사 응진당의 영산회상도와 16나한도 및 원통전 관음보살도를 그렸다. 1724년에 송광사 응진당 영산회상도를 그린 것을 비롯해 이듬해 20여 명의 화사들을 총지휘하면서 팔상전 영산회상도와 응진당의 16나한도, 제석도, 범천도, 불조전 53불도, 삼신불도, 오방여래도, 조사전의 33조사도를 조성하였다.

의겸이 운홍사의 대불사 작업을 하던 1730년 같은 해에 계룡산문의 대찰인 갑사 대웅전 삼세불화까지 그린 것을 보면 금어로서의 명성이 절정에 이른 듯하다. 곡성 도림사 보광전에는 갑사 삼세불 중 아미타불도와 같은 해에 조성된 거의 동일한 그림이 봉안되어있어 주목된다. 한눈에 보아도 같은 초본과 화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성방법, 설채법이 같다. 아마도 의겸이 각지의 불사요청에 부응할 수 없어 제자인 채인(彩仁)으로 하여금 조성하게 하였거나 그가 독립해서 독자적인 화사집단을 조직해 그렸을 것으로 추정해본다.²³⁾

18세기 전반기 의겸의 행적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1740년 대구 파계사와 1741년에 경남 고성 안정사에서의 작품활동이다. 대구 파계사 불사는 원통전 건칠관음보살좌상(1447년 중수)의 발

23) 유마리, 「조선조아미타불화의 연구」, 『조선조불화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38

원문(1740년, 건륭 5)에 왕실이 발원한 당시의 대불사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²⁴⁾ 발원문에는 대구 팔공산 파계사의 대법당 불상을 개금하고, 나한전 주불 삼존상을 조성·중수, 명부 시왕상을 중수하며 아울러 모든 암자에 불화 일천오십위를 조성한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이 대불사에 참여한 良工 13인 중에 의겸이 포함되어있으며, 불사기간은 9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 것을 알 수 있다. 파계사 불사 다음해인 1741년 경남 고성 안정사의 불사에서도 나한전의 예배대상인 석가, 아난, 가섭과 나한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겸이 파계사와 안정사에서 조성한 불상작품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겸이 운홍사 관음보살상을 조성한 이후에도 불상조각을 계속하였다는 중요한 방증자료이다. 또한 파계사와 안정사에서 공통으로 나한전의 삼존상을 조성하였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의겸이 활동하던 당시는 불화승과 조각승이 분명히 구분되었던 상황이어서, 의겸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결국 그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유일하게 근대의 佛母로 명성을 남겼던 완호의 경우, 부산 영도 복천사에서 제작한 불상작품이 남아있을 뿐이다.²⁶⁾

18세기 전반의 끝무렵인 화엄사 불사활동을 의겸의 작품활동에서 노년기로 보는데, 1749년에 그린 3점과 1757에 주관한 화엄

24) 최은령, 「韓國의 乾漆佛像 研究-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불교미술사학』 제5집, 2007, pp.159~161

25) 조선후기의 불상조각에서 수화승으로 활동한 118명의 작품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최선일선생님의 책에서도 불상과 불화를 함께 제작한 수화승은 오직 의겸 뿐이다. 최선일, 앞의 책(2007)

26) 박은경, 「복천사의 성보문화재와 특징」,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2007, pp.146~189

사 삼신불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이전 1742~48년 사이의 화적을 파악할 만한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 상세히 규명하기 어렵다. 1749년에 그린 개암사 패불과 그가 주관만 했을 화엄사 삼신불도를 보면 화풍상의 큰 특징인 안정된 구도와 정연한 분위기, 섬세하면서 힘이 깃든 필선은 여전히 갖추고 있지만, 호분이 많이 배합된 탁한 설채법, 지나친 장식성을 보이는 문양 등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의견은 화업과 수행 모두가 불교계의 귀감이 되어 유례없이 尊宿이라는 존칭으로 불리워지는 덕망높은 승려였다. 화엄사 불사를 참여한 이후 어느 작품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얼마있지 않아 입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작품을 대상으로 의견의 생몰연대를 고찰하면, 화사가 되기 위한 수업과정 · 片手시절 · 청곡사 패불 제작시기(1722년), 화풍상 완숙기에 들어간 운흥사 불사시기(1730년), 尊宿으로 추앙받던 패불제작시기(1749년), 노령으로 불화제작에 참여할 수 없었던 화엄사 삼신불화 제작시기(1757년) 등을 감안할 때 그는 늦어도 1690년 전후에 출생하여 불문에 들어 한평생 緣化僧으로서 50년 가까이 작품활동을 하고 1750년대 말 이후에 입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의 활동시기는 1710년경부터 1750년대 중반까지가 되는 셈이다.²⁷⁾

27) 안귀숙, 앞의 논문 上(1994), p.91

[표 5] 義謙의 작품활동 지역

시기 \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1710년대	1713년 보림사	1719년 운흥사	
1720년대	1723년 홍국사 1724년 송광사 1725년 송광사 1726년 실상사	1722년 청곡사 1729년 해인사	1728년 안국사
1730년대	1736년 선암사	1730년 운흥사	1730년 감사
1740년대	1749년 실상사 1749년 천은사	1740년 서봉사	1749년 개암사
1750년대	1752년 실상사 1757년 화엄사		

V. 맺음말

의겸은 화승으로서 작품활동의 전성기였던 1730년 운흥사 불사에서 뛰어난 불화작품 뿐만 아니라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의겸 작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불화승 의겸의 예술영역 확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를 표현하는 그의

예술적 기량을 입증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겸은 목조관음보살상에서 당시 불교조각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윤왕좌의 자세와 머리에 짧은 백의를 두른 모습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점은 의겸의 불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조형의식의 표현이다. 이것을 방증해주는 자료가 의겸이 운흥사에서 그린 관음보살도이다.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화원들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음보살상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불화이기 때문이다.

이후 의겸은 1740년 대구 파계사와 1741년 경남 고성 안정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적을 남기는데, 두 사찰에서 동일하게 나한전의 삼존상을 제작하는데 참여하였다. 안타깝게도 기록만 남아있을 뿐 작품은 전하지 않지만, 의겸의 넓은 작품영역과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셈이다. 물론 의겸이 전남 여천 홍국사(1723년)와 순천 송광사(1724년)의 불사에서 그린 십육나한도가 남아있어, 파계사와 안정사 나한상의 모습도 대략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경우처럼 불화와는 전혀 다른 품격의 나한상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의겸 작 운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불화승 의겸의 예술영역 확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를 표현하는 그의 예술적 기량을 입증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당시 불교조각에서는 작품사례를 찾기 어려운 윤왕좌의 자세를 하였으며 머리에 짧은 백의를 두른 모습에서, 의겸의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조형의식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겸이

같은 해에 운흥사에서 동일한 화원들을 이끌고 그렸던 관음보살도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불상을 조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운흥사 관음보살상은 당시 조선후기 관음보살상의 형식과도 대별되어 의견이 당대 수화승으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중국의 여러 화보집 등의 자료를 취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추론된다.

의견은 조선시대 18세기 전반 전라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대화승이었으며, 당시 화사와 조각승의 구별이 엄격하였던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도상을 회화와 조각의 두 분야를 모두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화승이다.